

교육공동체 나다
2018년 여름

방향성특강

숨바꼭질

술래들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참가안내



초등부 철학 선생님 몰래 춤을 춰요! 5강

★ 어린이를 둘러싼 권력, 놀이를 통해 탈출하다

중등부/고등부 철학 숨바꼭질 : 술래들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5강

★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한 숨바꼭질의 인문학

중등부/고등부 철학 착한 아이의 역습 : 권위주의적 도덕을 넘어서 5강

★ 도덕을 강제 받아 도덕을 믿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의 윤리학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18년 여름특강

“숨바꼭질 : 술래들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기획 소개 및 진행 안내

1. 초대말씀

2018년 상반기에는 참 특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종전의 가능성이 많은 한국인을 들뜨게 했고 지방 선거에서는 여당이 전례를 찾기 힘든 압승을 거두어 보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 여성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투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 관계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 이상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도 권력 관계에 취약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막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인문학 공부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트레이닝입니다.

숨바꼭질과 인문학은 여러모로 닮아있습니다. 인문학은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숨바꼭질입니다. 순(巡)을 바꾼다는 어원을 가진 숨바꼭질을 권력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에 대한 나름의 저항으로 해석한다면 인문학의 역할과도 닮아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준비한 특강 <숨바꼭질>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놀이입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가두려는 술래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그 날까지 나다의 숨바꼭질은 계속됩니다.

2. 개설 강좌

[초등부 철학] 선생님 몰래 춤을 춰요! (5강)

★ 어린이를 둘러싼 권력, 놀이를 통해 탈출하다

△ 참가자 12~13세 △ 일시 8월 6~10일, 오후 1~3시

[중고등부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 참가자 14~19세 △ 일시 7월 30일~8월 3일, 오후 1~3시

[중등부/고등부 철학] 숨바꼭질 : 술래들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5강)

★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한 숨바꼭질의 인문학

△ 참가자 [중등부] 14~16세 [고등부] 17~19세

△ 일시 [중등부] 7월 30일~8월 3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고등부] 7월 30일~8월 3일, 오전 10~12시

[중등부/고등부 철학] 착한 아이의 역습 : 권위주의적 도덕을 넘어서 (5강)

★ 도덕을 강제 받아 도덕을 믿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의 윤리학

△ 참가자 [중등부] 14~16세 [고등부] 17~19세

△ 일시 [중등부] 8월 6~10일, 오전 10~12시

[고등부] 8월 6~10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3. 강의 시간표

| 1주차(7/30~8/3) | 7/30 | 7/31 | 8/1 | 8/2 | 8/3 |
|----------------|---|------|-----|-----|------|
| 오전 10:00~12:00 | 고등부 철학 “숨바꼭질 : 술래들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아남기 위하여” | | | | |
| 오후 1:00~3:00 | 중고등부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 | | | |
| 오후 3:30~5:30 | 중등부 철학 “숨바꼭질 : 술래들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아남기 위하여” | | | | |
| 2주차(8/6~10) | 8/6 | 8/7 | 8/8 | 8/9 | 8/10 |
| 오전 10:00~12:00 | 중등부 철학 “착한 아이의 역습” | | | | |
| 오후 1:00~3:00 | 초등부 철학 “선생님 몰래 춤을 춰요!” | | | | |
| 오후 3:30~5:30 | 고등부 철학 “착한 아이의 역습” | | | | |

4. 참가 신청

- 개강 : 2018년 7월 30일, 8월 6일
- 접수 : 2018년 6월 29일부터 선착순 마감
-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3호선 독립문역 도보 5분,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11-1)
- 정원 : 모듈별 10명
- 강좌후원금 : 강좌 1종 10만원(회원 20% 할인, 납부예외 문의)
- 계좌 : 국민은행 762302-04-169524 임성민(교육공동체 나다)
- 문의/신청 : <http://nada.jinbo.net> 방학특강 게시판, 02-324-0148, 010-7133-2305
- 후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육공동체 나다 2018년 여름특강

“숨바꼭질 : 술래들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강좌별 소개

| | |
|------------------------|----------------------------|
| 철학 초등 | 선생님 몰래 춤을 춰요!(5강) |
| | ★ 어린이를 둘러싼 권력, 놀이를 통해 탈출하다 |
| 참가자 | 12~13세 초등부 청소년 |
| 일시 | 2018년 8월 6~10일, 오후 1~3시 |

누군가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 때, 하기 싫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TV를 보다가 나에게 물을 떠 오라는 언니에게도, 주말에 갑자기 등산을 하러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에도, 자신의 책상을 깨끗이 닦아 놓으라는 선생님의 말에도 이걸 좀 부당한 것 같다는 말을 꼭 삼키고 그저 따라야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본 친척이 마음대로 내 볼을 꼬집어도 그저 하하 웃어야 하고, 애들을 괴롭히는 선생님에게도 공손히 인사를 해야 하진 않았나요.

이처럼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해야하는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 숨겨진 어떤 힘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힘은 나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돈에서 나오기도 하고, 성적에서 나오기도 하고, 성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약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숨겨진 힘에 나도 모르게 떠밀리지 않도록 정체를 파악하고,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연습을 시작해봐요. 바로 우리가 하던 놀이를 통해서 말이예요. 술래를 피해 도망치고, 속이고, 술래를 바꿔왔던 놀이 속에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숨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함께 신나게 놀며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마음들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

1강_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 놀이로 뜯어보는 세상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즐겁게 해주던 놀이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우리의 바람들이 뒤섞여 숨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한 숨바꼭질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숨바꼭질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살면서 맺고 있는 관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떠올려본다면 놀이에 숨겨진 세상의 모습도,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2강_ 닫힌 방에서 탈출하기 : 우리를 가두는 힘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 벽에 걸린 액자의 뒷면, 놓인 물건의 배치, 수수께끼의 쪽지들을 살펴보면 퍼즐을 풀다 보면 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네모난 화면 속의 방을 열심히 탈출하고 현실로 돌아온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닌 것도 싫은 것도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현실에 말입니다. 하지만 규칙은 같아요. 이 방을 탈출하기 위한 힌트는 언제나 방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번엔 우리의 일상을 살살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에 갇혀있는 걸까요?

3강_ 선생님 몰래 춤을 춰요! : 어른들만 모르는 우리의 비밀놀이

어른들은 여전히 모를 거예요. 지금 이 놀이의 술래가 자신들이라는 사실도,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말이지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춤을 추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여행을 떠난 빈집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 술래가 뒤를 돌아볼 무렵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꼼짝도 하지 않아야만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다 다리에 쥐라도 나면 어떡하죠?

4강_ 경찰과 도둑의 술래잡기 : 당하고 살던 초딩들의 반격

우리를 지켜보던 술래가 더는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는 눈을 피해 자유를 누리는 것도 힘들게 되었어요. 술래가 숨 한번 고르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잡히지 않으려면 영원히 도망을 쳐야만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바로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우리가 뒤를 돌아 술래를 잡아보는 건 어때요?

5강_ 마피아를 찾아라 : 술래에게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

“자 밤이 찾아왔어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모두가 몸을 숙이고 있을 때 우리 안의 마피아가 고개를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도 쉽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진실을 말한다고 마피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옆의 사람들이 나를 믿고 함께 싸워준다면, 우리는 마피아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마피아의 공격에서 서로를 지켜내고, 함께 싸울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요.■

철학

중등/고등

숨바꼭질 : 술래들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5강)

★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한 숨바꼭질의 인문학

| | |
|-----|---|
| 참가자 | [중등부] 14~16세 청소년 [고등부] 17~19세 청소년 |
| 일시 | [중등부] 2018년 7월 30일~8월 3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고등부] 2018년 7월 30일~8월 3일, 오전 10~12시 |

2018년 상반기에는 참 특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종전의 가능성이 많은 한국인을 들뜨게 했고 지방 선거에서는 여당이 전례를 찾기 힘든 압승을 거두어 보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 여성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투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 관계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 이상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도 권력 관계에 취약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막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인문학 공부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트레이닝입니다.

숨바꼭질과 인문학은 여러모로 닮아있습니다. 인문학은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숨바꼭질입니다. 순(巡)을 바꾼다는 어원을 가진 숨바꼭질을 권력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에 대한 나름의 저항으로 해석한다면 인문학의 역할과도 닮아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준비한 특강 <숨바꼭질>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놀이입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가두려는 술래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그 날까지 나다의 숨바꼭질은 계속됩니다.

.....

1강_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 놀이문화에서 세상을 읽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절로 열린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놀이 속에 숨은 아이들의 욕망을 살핀다면 조금은 다른 기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숨바꼭질’은 누군가를 피해 숨어있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놀이는 아닐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누군가의 감시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놀이는 아닐까요?

2강_ 학교에서 숨바꼭질을 : 일상 속의 숨은 권력들

청소년들은 언제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세상을 가득 메운 술래들의 눈길을 피해 몰래몰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술래가 누구인지 눈치채셨나요? 그러나 술래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술래는 가장 깊이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3강_ 굴뚝청소부의 딜레마 : 권력이 숨기고 있는 것들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면 두 명의 굴뚝 청소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굴뚝 청소를 끝내고 난 후 한 명은 얼굴에 검댕이 묻었고 한 명은 멀쩡했습니다. 둘 중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검댕이 묻은 쪽? 아니면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으니 검댕이 묻지 않은 쪽? 소설에는 아무도 세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적혀있습니다. 굴뚝 청소를 했는데도 검댕이 묻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굴뚝 청소를 하지 않았으면 서도 하얀 얼굴로 시치미를 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알 수 있겠어요? 술래가 누구인지를….

4강_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전래 동화 비틀어 읽기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술래를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호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무의식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읽은 어떤 이는 누구도 상상 못 할 무언가를 술래라고 가리킵니다.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잔인한 숨바꼭질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5강_ 이젠 네가 술래야 : 권력에 대한 욕망

예전에는 후배들을 통제하고 심지어 체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선배들에게 주고는 했습니다. 선도부라고 불렀던 무시무시한 완장은 이름과 형태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완장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기꺼이 팔에 두르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받은 고통을 대물림할 순 없다며 완장을 패대기칠 수 있을까요?■

철학

중등/고등

착한 아이의 역습 : 권위주의적 도덕을 넘어서(5강)

★ 도덕을 강제 받아 도덕을 믿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의 윤리학

| | |
|-----|---|
| 참가자 | [중등부] 14~16세 청소년 [고등부] 17~19세 청소년 |
| 일시 | [중등부] 2018년 8월 6~10일, 오전 10~12시 [고등부] 2018년 8월 6~10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

가끔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하니?” 어떤 청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진심이든 아니든 이 대답을 부모가 듣는다면 얼마나 뿌듯해할까요? 참 착한 아이라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청소년을 두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이 엄친아의 존재는 수많은 다른 청소년을 나쁜 아이로 만들고 그 나쁜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슬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을 착하다고만 여길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차라리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편이 훨씬 도덕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절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장 ‘편하게’ 선택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들만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닌 이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선’이라는 입장을 이기적이라고 욕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을 다루는 학문인 윤리학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떤 도덕적 입장에 서서 살아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는 세상의 규범에 맞설 것인지 순응할 것인지, 대부분의 중고등 학생은 아침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노약자석이 피곤한 몸을 유혹할 때도 도덕적 갈등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도덕적 입장에도 정해진 답이 있다는 도덕 교과서에 의지하면 갈등 따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교과서가 말하는 도덕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이 안 갑니다.

여전히 도덕이 강요되는 시대, 유독 정의가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도덕적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엮어매는 도덕이 아니라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덕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도덕에 대한 다소 까칠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정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의 도덕이 내 삶에 채운 족쇄가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강_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 도덕적인 사람이 더 매력적일까?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때, 당신을 가장 끌리게 만드는 것은 외모인가요, 능력인가요, 인품인가요? 확실한 것은 인품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결국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은 친구나 애인을 사귄 때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착하면 손해 본다.” 사람에게 대해 배려하는 태도, 일종의 도덕성이 인품을 의미한다면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2강_ 가난이 죄인가요? : 약한 사람은 왜 도덕적이기 어려울까?

엄마가 젓 줄 때까지 울지 않고 기다리고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떼쓰지 않는 천사 같은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가장 미약한 인간 중 하나인 아기들에게 사람들은 도덕적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장 뭐라도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빵집에 진열된 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도덕적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생존보다 소중한 가치로 포장되는 도덕의 맨살은 혹시 고슴도치처럼 돌아난 가시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3강_ 착한 아이 콤플렉스 : 위험한 도덕성, 권위에 대한 복종

여러분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벌을 받고 사나요? 혼나는 정도로 그치나요? 아니면 벌을 서거나 사랑의(?) 매를 맞았던 경험도 있나요? 교사나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체벌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되기 전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았던 체벌에 대한 기억이 양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체벌을 많이 당한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4강_ 악마는 이웃집에 산다 : 악의 평범성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주위의 물건들을 부시거나 집어 던지고 싶었던 기분이 든 적 있나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만 있다면 분명 그 분노는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은 착하디착한 사람인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자극하고 폭발하게 만들까요? 혹시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아닐까요?

5강_ 반성문의 딜레마 : 도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반성문이란 걸 굵적여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해서 반성문을 썼다는 사람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척만 하는 그런 글들이 전부라면 이런 무의미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반성하지 않는 세계에서 넘쳐나는 반성문과 사과문이 상징하는 것은 진정한 도덕은 글로는 배울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

| | |
|--------------------------|--|
| 입문 중고등부 |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
| | 참가자 14~19세 중고등부 청소년 일시 2018년 7월 30일~8월 3일, 오후 1~3시 특이사항 중등부와 고등부 청소년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화제로 접근하므로 나이차나 난이도 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인문학은 영어로 ‘humanities’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humanitas(인간다움)’에서 온 말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 그것이 인문학에 대한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인간’이라는 동일률을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만 몰라본 게 아니라 물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속성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은 나르시스처럼 자신을 타자화할 수 없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대상들 역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상과 대상에 대한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를 좁혀나가기 이전에 그 거리를 의식하는 것, 즉 ‘거리두기’가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나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의 ‘거리두기’의 연속입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어떤 공부든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계에 대한 기존의 판단에 대해 끊임없이 거리를 두는 태도 없이는 학문적인 성취와 발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부에, 특히 제도 교육을 통해 배우는 공부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인문학적 사고가 실종된 공부의 과정은 공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다에서 인문학 강좌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인 셈입니다. 그 연습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강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싸움의 흔적이 강좌를 마친 자리와 강좌에 참가한 모두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

1강_ 은유, 거리두기, 그리고 인문학

아이들이 문학을 싫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간지럽게 만드는 화려한 영상은 굳이 활자를 통해 이미지를 상상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렸습니다. 딱 짜인 아이들의 일과는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조차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인 문학의 언어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은유’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문학책을 던져 준다는 것은 외국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번역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문학의 가나다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혹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2강_ 우리는 왜 꿈꾸지 않는가? : 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하여

꼬마 적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꿈꾸었습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멋지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꿈꾸었지요. 그러나 그런 꿈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 속에조차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철이 들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춰진 꿈, 누군가에게 강제된 꿈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향한 열망은 때로 우리를 심각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직과 구속을 꿈꾸며, 평등을 멸시하고 자유롭지 않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어찌면 지금은 잃어버린 꿈의 마지막 조각을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만나봅시다.

3강_ 대중문화, 가린 것을 벗기고 숨긴 것을 드러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대중문화가 문화 일반의 영역만큼 (어떤 의미로는 그 이상으로) 넓어진 지금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인지 애매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한의 근거도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권위를 통한 강제적인 단절은 반감(反感)까지 더해진 욕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심스런 접근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그를 통해 대중문화의 전혀 새로운 재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면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재일지도 모릅니다.

4강_ 광고, 자본주의의 전도사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살지만 광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싼 돈을 들여 최고의 스타를 섭외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 노출시키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광고는 알듯 모를 듯 애매모호한 이미지와 문구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주부들은 사지도 못할 고급 냉장고에 마음을 빼앗기는 지, 왜 아이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게임 아이템에 눈을 빼앗기는지, 그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강_ 이상한 나라의 네오, 매트릭스에서 길을 잃다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좀 으스스하지만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SF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모비어스가 나타나 속삭였을 법한 물음….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혹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매트릭스>는 미래 사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가상이라는 적나라한 메시지입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18년 여름특강 소개 마침■